

관객참여 전시 <Power Station 점점 발전소>



여히는 과정을 통한 체험활동이 전시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말기에서는 이러한 상호교류 과정을 통해 재탄생되고 완성된 작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관객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입장료를 구입하면서 받은 가이드북을 다음 관람 시에 가져오면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주제기획전 I <Power Station 점점 발전소>는 일반적인 미술전시에서처럼 완성된 작품만을 보여주는 정지된 공간이 아닌, 관객이 전시기간 동안 작품이 변화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 이외의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관객과 함께 전시공간에서 풀어가고,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띠니다. 작가 고유의 작업 방식을 통해 관객이 작가의 창작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구체적인 공간, 장소 미술관을 만드는 과정을 시각화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관객이 주체가 된 이번 전시는,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관객을 끌어들이는다면, 전시기간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진행 변화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 오픈 때에는 오로지 작가에 의해서만 제작된 작업이 보이고, 중기에는 작가가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이 작품을 참

무료로 볼 수 있는 '내가 가는 길이 ART'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오후 5시) <Power Station 점점 발전소>의 미드텀 파티를 시작으로 작가와 관객이 함께 작업하여 완성된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시 말기기간에는 전시에 대한 관객들의 의견을 묻는 '관객에 의한 전시평가 프로젝트', 조명기구를 만들어보는 Avec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참여 작가는 송재호(건축), 안규철, 김나영, 김수범, 김수연, 김신일, 박지은, 오세환, 윤사비, 이주영, 접는 미술관(이두성, 피오렌자 메니니, 로익 가르니에, 샌디 머덴 앙리 조셉 스테판), AGI, 관객에 의한 전시평가 프로젝트 등 13 작가군들로서 관객과의 상호교류와 진행과정을 시각화시키는 프로젝트 성격의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동시대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미술의 현장작업 중심의 관객 참여적인 작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개요

전 시 명 :
Power Station 점점 발전소
전시기간 :
5. 20(금)~7. 10(일)
매주월요일 휴무